

4/14/24

설교 제목: 복음의 동역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2 장 19-30 절

- (빌 2: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램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 (빌 2: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절판주** 요 10:13
- (빌 2: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 (빌 2: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 (빌 2: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 (빌 2: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 (빌 2: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 (빌 2: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 (빌 2: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 (빌 2: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 (빌 2: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에 감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신실한 제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1 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 루스드라에서였습니다.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 의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지역에서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디모데는 회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자신의 2 차 전도 여행에 합류시킵니다.

그후 둘은 평생을 함께 하며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 년 6 개월의 기간 대부분과 에베소에서 보냈던 3 년의 기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믿고 신뢰하는 디모데를 보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고, 디모데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달려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디모데가 파송되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점차 복음 전파를 위한 차세대 주역으로 성장했고 드디어 초대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빠져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인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빌 2: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각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지키며 힘겨운 영적 싸움을 싸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 곁을 떠나 전도 여행을 계속하는 중에도 그의 선교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마음 속 깊이 사랑했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더욱 애착을 가졌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영적 승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빌 2: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빌 2: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하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 진실한 사역자는 찾아 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역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염려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역의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추어 사도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함께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빌 2: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를 가리켜 '동역자' '형제'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종'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롬 16:21)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몬 1: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딤후 1:2)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6:11) 따르며

(딤후 1: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
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빌립보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풀려나게 되면 그때 자신도 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빌 2:23)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빌 2:24)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본래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위로하고 도우려고 성도 중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에서 파견될 때 받은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를 '자기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자신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머무는 동안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중병에 걸려 아프다는 소식만 듣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걱정할 것을 근심하였고, 그런 이유로 직접 그들에게 가서 자신이 나왔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참으로 심성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게 하기 원한 것입니다.

(빌 2: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 2:27)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 2: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모든 핍박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신실하게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 마음 같아서는 모두들 찾아가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도와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했기에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헌신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빌 2: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빌 2: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와 같은 자'는 복음을 위해 맡은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은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를 미쁘게 여기시고 중병을 치유해 주셨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사도 바울과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 로마 교회 공동체에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신앙 공동체 안에 디모데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하는 사역자가 있는지 찾아 그런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칭찬 받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동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세상이 좋아 떠나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 복음 전파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 자신이 맡은 임무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복음에 열정을 품고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충성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태우는 열정과 철저한 헌신이 복음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빛과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